

담양군, 첨단문화복합단지 준공 '초읽기'

전국 최대 규모 전원주택단지...99% 분양률 공동주택 680세대 연말 입주...마무리 공사 중

담양의 지도를 바꿀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첨단문화복합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말 입주 예정인 680세대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약 38만6천 평, 1천400여 세대 규모의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지난 2011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5년에 걸친 행정절차

를 거쳐 2017년 착공했다. 사업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부분준공을 추진 1단계 구간인 단독주택용지 355세대는 준공이 완료됐으며 50여 세대가 건축 허가 후 활발히 공사 중이다. 사업지 동측의 2단계 구간은 주요공사가 완료됐으며, 입주 후 에

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기 위한 마무리 공사 중에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준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첨단문화복합단지는 현재 99퍼센트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개원 예정인 페이스튼 국제학원 등의 교육시설과 함께 병원 및 다양한 복합 상가 시설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담양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추진

장성군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광역방제기와 드론 등을 사용해 단계별로 일제히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장성군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일반벼 재배 전(全)면적에 대해 이를 도입해왔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적기 방제가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벼 재배 농업인으로, 작년 쌀 번동작금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ha 당 15만원(약제비, 공동방제비 등)까지 지원한다. 공동방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7월 3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향후 공급량을 확정

오는 3일까지 신청 접수
ha 당 15만원까지 지원
"농작물 피해 최소화"

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중점 방제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작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이행을 위해 군은 방제단, 도우미 등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적기 공동방제를 통해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단보단 쌀 생산량 전남도 내 1위(491kg, 국가통계포털)를 기록했다. 군은 경희장, 상토, 매트, 맞춤형 비료, 육묘상자 처리제, 액상규산, 건조기, 지계차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장성=박종영 기자

곡성군, 사과 하계전정·화상병 컨설팅 이론 교육

사과주산단지 농업마이스터 강사로 초빙... 30여명 참석



곡성군은 기상재해피해에 따른 나무 수세관리 및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난 26일 검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사과 하계전정 및 화상병 예방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4월 5~6일 저온피해(-3.3℃)와 6월 6일 우박피해로 인

해 사과 과실 착과량이 전년 대비 30~40% 감소했으며, 이에 착과량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강한 수세로 인한 도장지 다 발생 및 과번무, 내년도 꽃눈분화 불량 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아직 전담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426농가, 238.9ha) 중인 과수 화상병이

최근 남부지역으로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올해 사과 재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사과 재배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사과주산단지의 농업마이스터를 강사로 초빙하여 사과 농업인 및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 착과량 감소에 따른 수세관리 방법 및 과수 화상병 예방과 방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사과 재배 농가가 이번 교육을 통해 나무 수세관리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내년도 꽃눈 착과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농가 필수 실천사항을 꼭 준수바라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곡성군 농업기술센터(061-360-7361~3)에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나주 산포면, 코로나19·장마철 대비 대청소

의용소방대원 30여명 면 소재지 가로화단 정비·쓰레기 수거

나주시 산포면은 의용소방대원과 직원들이 최근 본격적인 장마철 대비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남·여 의용소방대원 30여명은 면 소재지 가로화단 2곳을 정비하고 주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최종주 산포면 의용소방대장은 "농번기라 바쁜 일정이지만 코로나19 예방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동참해준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산포면을 비롯한 시청 체육진흥과, 상하수도과 직원 30여명은 비상활주로 및 국도 인접 도로변의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우미옥 산포면장은 "살기 좋은 산포면 만들기에 늘 솔선수범해주시는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회원들의 아로다운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며 "주민의 건강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순군 백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50만 원 지원

화순군은 백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해당 가구원이 몸을 다쳤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23일 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6일에는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계비를 전달하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정정식 협의체 위원장은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며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안희순 백야면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보살피는 백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토란에 달콤함을 입히다

오는 30일까지 월·목요일 총 10회 교육 실시

곡성군은 곡성토란의 다양한 상품화를 위해 섬진강기차마을 내 한국초콜릿연구소뮤지엄과 함께 교육을 시작한다. 지난 6월 29일 개강하여 오는 7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총 10회를 추진한다.

관내 창업자 및 거주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15명을 모집한 이 과정은 짧은 모집기간에도 곡성

권, 육과권 카페 창업자 뿐만 아니라 창업을 앞둔 청년들,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산물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의 뜨거운 호응으로 18명이 희망하여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교육은 곡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장미의 고장 섬진강기차마을에서의 색다른 그리고 품격 있는 체험을 제공하고 곡성 농산물의 다



양한 상품을 선보이고자 시작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기차마을과 초콜릿연구소뮤지엄을 들으며 눈이 즐겁고 달콤하고 수준 높은 교육에 즐거워하며 열심히 참여하였다.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평일 밤 한
일 상 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 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